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16

두꺼비의 슬픔

대구에는 망월지(望月池)라는 연못이 있다. 이 연못은 자연과 문화유산을 시민들의 이름으로 보존하는 비영리 단체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2010년 선정한 '꼭 지켜야할 자연유산'이다.

이곳은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로서 5·6월에 수백만 마리의 두꺼비가 이동하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자연생태 현장의 보고(寶庫)이다. 두꺼비 보호를 통해 생태의 균형을 지켜야할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 망월지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저수지를 매워 용지로 변경하려고 관할 지자체인 수성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하기도 했다. 다행히 보존가능성이 열렸지만 별 것 아닌 탐욕을 위해 수백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람들이 가엾기만 하다.

망월지라는 명칭은 달의 정(精)인 두꺼비가 살기에 꼭 알맞은 이름이다. 태양의 정(精)이 삼족오(三足鳥, 세발 까마귀)인데 반해, 삼족섬(三足蟾)을 비롯한 두꺼비는 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세발달린 두꺼비는 재물의 신(神)이며, 가문의 수호신이다.

중국 송나라 초기에 북경에는 유해(劉海), 또는 해섬자(海蟾子)라 불리는 신선이 살았는데, 세발달린 두꺼비를 길이를 알 수 없는 집안의 우물에 키웠다 한다. 그런데 이 두꺼비는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주인을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는 신족통(神足通)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돈을 좋아해서 재물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두꺼비는 향문이 없어서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는 않아 몸뚱이가 계속 커진다. 한 가지 결점은 주인이 소홀히 대하면 우물을 빠져 나가 도망가 버린다는 것.

유해라는 신선은 도망간 두꺼비를 잡으러 다니다가 찾으면, 실에 동전을 꿰어서 낚시하듯 머리 위로 어른거리면, 돈을 좋아하는 두꺼비를 다시 잡을 수 있었다 한다.

조선조 후기의 도화사 화원이던 임당 백은배(琳塘 白殷培)는 물 속에서 머리를 든 두꺼비위에 금화를 맨 줄을 그리고 있는 신선도를 그린다. 또 파주 보광사와 공주 마곡사의 대광보전 벽화엔 하마선인도(19세기)가 그려져 있는데, 세발두꺼비를 크고 우람하게 그려놓은 단정장의 유머가 돋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두꺼비그림은 아마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의 하마선인도(蝦蟇仙人圖)일 것이다. 비단에 수묵담채로 그린 이 그림은 크기가 불과 22.9× 15.7cm에 불과하다.

남루한 걸인의 옷을 걸친 신선이 지푸라기같은 접힌 끈을 드리우고, 세발 달린 두꺼비와 장난을 치는 그림인데, 호방한 구도와 불빛은 산만해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의 하마선인도(蝦蟇仙人圖)

신선 유해가 기르던 두꺼비는 신족통과 재물 있는 곳 알려줘 주인이 소홀하면 도망가버려도 재물 좋아해 동전에 다시 잡혀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표현이 뛰어난 작품이다. 게다가 이 그림은 붓만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손가락(지두화)과 손톱으로 그려 더욱 생동감이 느껴진다.

아무튼 이 세발두꺼비는 한·중·일 동양 삼국에서 재물과 길상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의 애호를 받았던 그림이다. 최근에는 다도를 하는 많은 차인들의 다상을 차지하는 장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 의미를 모르고 있기도 하다.

두꺼비가 가끔 도망간다는 의미는 돈처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쉽다는 의미를 지닌다. 향문이 없고,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는, 일단 벌어들인 돈은 낭비하지 않고, 자산을 불리는데 그 의미를 둔다는 뜻이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세발달린 두꺼비가 신족통을 지녀서 그 주인을 세상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단지 망월지의 소유주들이 두꺼비가 재물의 복신이라는 것을 알고, 잘 보호해 재물을 기원하기를 바라는 한 할 뿐이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78



명부전(冥府殿)

늘 겁 없이 지나다니던 길목, 명부전 앞. 그 길을 그렇게 겁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지장보살님이나 시왕 앞에 담당해서가 아니라 명부전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시방삼세에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을 것인데, 하물며 도량의 길목마다 붙여진 이름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지나갔던 세월을 생각하면 그것도 겁보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날을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 명부전 뜰의 발자국들이 비에 젖었다. 인경(印經)을 하듯 고인 빗물에 발자국들이 드러났다. 발자국 위에 또 발자국, 그 위에 또 발자국. 명부전 뜰엔 발자국이 많았다. 대웅전보다 많았고, 극락전보다 많았다.

내릴 비가 다 내리고 해가 돋았다. 고였던 빗물이 햇살에 마르고 발자국엔 햇살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햇살에 발자국이 드러났다. 여전히 명부전 뜰엔 발자국이 많았다. 명부전을 떠나지 못한 발자국들이 아직 많았다. 비에 젖었던 풀잎도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공주 마곡사 명부전 앞에서.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강상 20 조선 영월정학 선사의 <원각(圓覺)>

번뇌는 해탈의 근원

開士因行問世尊 (개사인행문세존) 全提究盡盡憊憊 (전제구경진흔흔) 無明性寂寂如性 (무명성적적인여성) 煩惱根無解脫原 (번뇌근무해탈원) 智慧愚癡渾不別 (지혜우치혼불별) 有情無性妙難分 (유정무성묘난분) 衆生成佛其來久 (중생성불기래구) 圓覺爲家臥白雲 (원각위가파백운)

보살이 인행을 세존에게 물으니 온전히 구경을 들어 다 뒤집었다. 무명의 성품 고요하니 진여의 성품이요 번뇌의 근본 없으니 해탈의 근원 지혜와 우치 혼연히 나눌 수 없고 유정과 무성 묘하여 구분기 어렵네. 중생이 부처 이름은 오래되었는지라 원각으로 집을 삼아 백운에 누웠네.

13세에 가지산 보림사(寶林寺)에 출가하여 청허에게서 법을 받은 영월정학(詠月淸學; 1570~1654) 스님이 사집(四集)·사교(四教)·전등(傳燈)·염송(拈頌)·화언(華嚴)에 대해 읊은 시들 가운데 <원각경>에 대한 시이다.

인행은 부처님이 보살로 있을 때 온갖 덕의 과체(果體)를 성취한 행을 말한다. 두런에서는 원각·보안등 12명의 보살들이 부처님과 의문을 통해 대원각(大圓覺)의 구경을 남김없이 보여준 경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보았다.

다들 네 구는 원각의 실상을 읊었다. 무명과 진여의 성품이 같으며 번뇌가 즉 보리임을 직설해 놓고 이어 비유로써 무명인 우치와 진여인 지혜, 번뇌로 덮인 유정과 무자성인 해탈을 제시하였다. 이때 양극에 있는 두 성품이 실제로 나누거나 구별할 수 없음을 명사와 동사 등의 대구를 사용하여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미련에서는 오래전에 부처가 된 중생이 원각으로 집을 삼아 백운 간에 노니는 모습을 선적으로 표현해 놓았는데 다음 문답을 가능케 하는 절묘한 구성이다.

원각으로 집을 삼은 이는 누구인가? 바로 중생인 나이다. 중생은 누구인가? 이미 오래전에 부처가 된 이다. 부처란 무엇인가? 원각이다. 원각은? 이 사바에 시설해 있는 무명과 진여 지혜, 우치, 번뇌, 해탈 등이다. 그럼 백운에 누웠는가? 인행(因行)이 바로 그것이다.



원법 스님(운문사·문학박사)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던졌던 길, 발자국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

합니다.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 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팬던트, 이부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 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앞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낸으면 3회 정도 헝겊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 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강염주 줄을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 줄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강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게두고 모주와 마강염주사이에는 5mm정도 남게됩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회 헝겊 초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